

## <도착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한국 대전과 충남에서 온 교과서 방문단입니다.

각 지역별 시민사회단체 주요 임원은 물론 현직 역사교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내에서는 후쇼샤에서 간행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강한 불신의 감정이 일고 있습니다. 재침략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함은 물론 우호 협력과 공존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역사해석에 여러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들어진 교과서는 사실 자체를 왜곡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후쇼샤 교과서의 경우 독도 기술에서 합격본이 신청본보다 오히려 왜곡이 강화돼 검정과정에서 일본 문부과 학성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22년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충남도와 구마모토현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근대화 시켰다는 기조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는 또 한중일 3국 역사학자들이 3년동안 머리를 맞대고 만든 공동 역사교과서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리는 2세들에 대한 바른 역사교육을 받는 것은 양국이 미래증진을 위해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동반자로 서야할 한국과 일본이 다시 가깝고도 먼나라로 되돌아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구마모토시민여러분 ! 그리고 이문제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관계자 여러분!

4년 전 처럼 청소년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슬기롭게 극복되는데 힘을 보태주시시오. 진정으로 영국 시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비가 온후 땅이 더욱 단단해 지듯 교과서 문제의 해결과정을 통해 양국 지역간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마모토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청원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한국 대전과 충남에서온 교과서 방문단입니다.

각 지역별 시민사회단체 주요 임원은 물론 현직 역사교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내에서는 후쇼샤에서 간행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강한 불신의 감정이 일고 있습니다. 재침략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함은 물론 우호 협력과 공존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역사해석에 여러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들어진 교과서는 사실 자체를 왜곡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후쇼샤 교과서의 경우 독도 기술에서 합격본이 신청본보다 오히려 왜곡이 강화돼 검정과정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22년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충청도와 구마모토현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근대화 시켰다는 기조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는 또 한중일 3국 역사학자들이 3년동안 머리를 맞대고 만든 공동 역사교과서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라는 2세들에 대한 바른 역사교육을 받는 것은 양국이 미래증진을 위해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동반자로 서야할 한국과 일본이 다시 가깝고도 먼나라로 되돌아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구마모토시민여러분 ! 그리고 이문제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관계자 여러분!

4년 전 처럼 청소년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슬기롭게 극복되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진정으로 영국 시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비가 온후 땅이 더욱 단단해 지듯 교과서 문제의 해결과정을 통해 양국 지역간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단 인사말>

저는 구마모토충남방도교과서방문단 단장 송인준(부단장 홍순승, 김화자)입니다.

2005년이 시작됐을때 한국에서는 한일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감을 가졌습니다.

일본에서의 한류열풍과 함께 한일 국교정상화 40돌에 한일우정의 해로 우호관계가 깊어질 것으로 예측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호증진은 한일이 서로 양국을 자유롭게 오가는 자체로 두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진심이 통해야 합니다.

재침략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독도문제 등을 왜곡한 일본의 후소샤 역사교과서와 채택을 돕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걸마음과 속마음을 의시미하게 합니다.

올해는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당한지 110년이 됩니다. 불평등조약인 을사조약이 체결된지 100년이 됩니다.

또다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양국관계와 관련 불평등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미래의 동반자로 서야할 한국과 일본이 다시 가깝고도 먼나라로 되돌아가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4년 전 처럼 청소년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슬기롭게 극복되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구마모토 시민들과 충남의 시민들이 서로 허심하게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